

지 상 범 석

누구나 성불할 수 있어요”

‘남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까’ 대비심을 내면
그대로 부처님이 출현 합니다

‘은갖 나쁜 일 저지르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두루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히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고 하는 7불통계(七佛通誡)가 부처님의 49년 법문의 내용을 가장 쉽게 담고 있습니다. 약한 일 짓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쉬운 가르침입니까? 다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실천이 어려울 따름입니다.

본래심(本來心)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우십시오. 본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늘 절을 하십시오.

그런데 절을 하면서 성질은 왜 그리 뻣뻣

한 일이지요. 오늘날 깨끗한 정치, 바른 삶을 찾자는 구호를 너도 나도 외치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종교인들이 나머지 비종교인들을 선도하지 못해 이러한 도덕불감증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향락을 위해 인명을 파리 목숨처럼 해치고, 몸통아리의 자양분을 위해 미물을 함부로 죽이는 오늘날의 세태는 종교인들이 책임을 지고 반성하면서 바른 길로 선도해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 꽃과 노래와 연등을 바치는 것

수는 없습니다. 같게 그러려고 애쓰는 더욱 어긋날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시장하면 밥먹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돌아앉은 이에게는 도무지 감(感)이 안갈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치는 방도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깨쳐서 진리와 하나가 될 때 모든 말이 하나로 통합니다.

사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헛되고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자기 본수를 망각하고 살게 됩니다. 자기 본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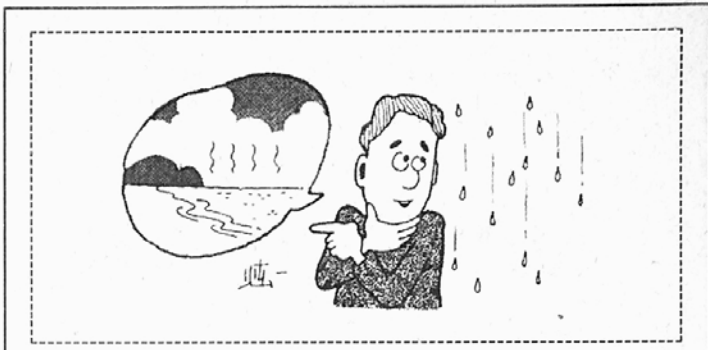
잡니다. 지혜를 구족한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살은 일체중생을 제도키 위해 수행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보살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극락세계는 이 땅에서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까’ 하는 대비심(大悲心)을 내면 그대로 부처님이 출현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신과 대자대비의 몸통이를 지닌 채 중생제도(衆生濟度)로 양식을 삼는다면 거기에 더 보탬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정신이 살아 있다면 오늘날 혼탁한 세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제도를 위해서는 먼저 세간(世間)의 생물을 관(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착을 여의면 곧 낯곳을 두지 않게 됩니다. 범부(凡夫)가 지혜가 없어 생각을 짓고 집착하여 유(有)와 무(無)를 구하고, 바르지 못한 허망한 행동으로 사된 도를 행하는 것은 밑바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을 복은 영원히 새지 않는 독에 물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



어떤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 본 적이 있다.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하지만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의 수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합하거나 별리(別離)하는 것이어서, 현상적으로 보면 나고 죽음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붙어있거나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 이 또한 부중불감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나고 죽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왜 사람의 수만 세느냐고 물었다. 지상에 사는 생명체가 사람만은 아닐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같이 살아가는 장소이다. 실제로 불교를 비방하고 자 하는 의도에서 세상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윤회 사상을 부정하고자 하는 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윤회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를 과학으로 부정하기는 더욱 어려우리라고 생각한다. 과학으로 이를 부정하려면 이 세상에 사는 박테리아의 수가 모두 세어야 하는 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체의 수를 세어가면서 윤회가 맞는지 틀리는지 하고 논쟁하는

부중불감

양 형 진

26

부중불감

부중불감이란 윤회가 맞는지 틀리는지 하고 논쟁하는

‘나쁜일 말고 선행 많이 하라’ 부처님 49년설법 욕심 때문에 실천 못해 ... 인과 바르게 알아야

합니까. 절을 하는 행위는 나를 격오하는 것입니다. 절은 하심(下心)을 내기 위한 공부가 되는데, 자기를 격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이 됩니다. 옛날엔 절을 한 번만 해도 사람들이 은화함을 보였는데, 요즘 사람들은 절만 구벽구벽 잘하지 속마음은 뻣뻣하지요.

세상사람 중에는 겉대기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와 너라는 구별을 버리고 참다운 진아(眞我)를 돈중(頓證)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과를 알고 사리(事理)를 밝히는 공부를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 남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받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제 밥그릇은 스스로 챙겨야 하듯이 남에게 의존하는 공부는 한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욕심을 끊고 구하는 것이 없으면(斷慾無求) 속명통(宿命通: 전생의 일을 알아는神通력)이 멀지 않고 해탈(解脫)이 멀지 않습니다. 드디어는 ‘그대가 바로 부처(汝即是佛)’가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고 다른데서 부처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헛

도 좋지만 불교인들이 대오각성하여 주변부터 밝게 정리하면서 내 마음, 내 가정부터 맑게 나가는 자세가 부처님을 받드는 가장 큰 공양이 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영리하지만 진리는 평범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예전과 다름이 없고, 저 대천세계에 물 내려가는 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피상적인 현상은 변하고 바뀌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 자성(自性)은 불변이라는 것이지요.

재가불자들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저마다 잘 알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아서 제각기 가다가 벽에 부딪치면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돌아앉아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니다.

좋은 말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 그대로 여여(如如)하게 생동하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억지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과 물은 아무리 그대로 그러려 한들 똑같이 그릴

하심하기 위해 절 하는데
자기를 격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이 됩니다

모르고 하루 아침밥도 먹기 힘든 신분에 세 때를 산해진미로 먹어야겠다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우리가 삼독의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야바라밀’은 사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을 떠나 사물의 실상(實相)을 바로 알면 집착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모르면 어떤 물건을 봐도 그것의 형상에 마음을 빼앗겨 애착과 욕심을 내게 됩니다. 급기야는 소유욕으로 인해 물건을 훔치는 지경에 이르게도 합니다. 착잔이 먼저로 이루어져 있듯이 근본으로 들어가면 무상(無相)의 경지가 펼쳐

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공덕이 가이없는 복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물건이 모두 끊어진 자리에 무량한 복덕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다는 생각도 말고, 받는다는 생각도 말며, 이 물건이 어떤 것인지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不讚金花不坐禪 無言相對是何宗 非風流 處風流足 碧嶺千年秀古松

經도 읽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며, 말이 상대하니 이 무슨 宗이고, 풍류 아닌 곳에 풍류가 넘치니 푸른 뫼부리에 천년묵은 고송이 빼어났네(한암스님이 고송스님에게 법호를 지어주며 써 준 전법 계송)

무분별·무심 경지서 보면 생멸 증감은 없어 일체는 변하지만 바닷물과 파도같은 현상

것은 불교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아이 장난과 같은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해명하면서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선언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부중불감(不中不減)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엇이 부중불감인가? 흔히 바다를 부중불감의 간단한 예로 든다. 무수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닷물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다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어느 한 순간 쉬는 일없이 계속하여 운동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또 한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수증기가 바닷물의 표면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동요한 바닷물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매 순간 변하고 있으니 지금의 바다가 또한 바로 후의 바다가 아니다. 이 변화의 과정 중에서도 유입되고 방출되는 양이 동적인 균형을 이루 어 바닷물의 양은 언제나 부중불감이다.

생명체의 예를 들자. 생명체의 모습은 물론 나고 죽는 것이라고 하여야 하겠으나, 바닷물에서의 마찬가지로 나고 죽음에도 실제로 증감은 없다. 생명체의 나고죽음이라는 것이 지수화공의 시대(현대적인 표현을 쓴다면 제 원자)가 화

내어 보기 때문이다. 강물이 유입되고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을 같이 보고, 나고 죽는 것을 같이 보며, 파도가 일고 스러지는 것을 바다와 함께 본다면, 즉 일체 존재를 이것과 저것, 또는 나와 너라는 분별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주객을 합친 경지에서 본다면 보는 일도 없고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종족 스님은 “제법(諸法)의 당체(當體)가 진공실상(眞空實相)이니 실상의 체를 세우 본즉 생멸함이 없고, 생멸이 없으니 어찌 구경이 있었는가? 또한 구경이 없으니 어찌 증감이 있었는가?”라고 하셨다. 또한 능엄경에서는 “오음(五陰)과 육입(六入)과 십이처(十二處)와 십팔계(十八界)가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별리하면 허망하게 멸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업(業)을 따라 발현(發現)하는 것이어늘...다만 식심(識心)으로 분별하고 계도(計度)하는 것이라 다만 언설(言說)이 있을 뿐이요, 전혀 실의(實義)가 없다.”고 하셨다.

불구부정에서 말하였던 것과 같이 무분별 무심의 공관(空觀)으로 올바르게 본다면 오직 부중불감일 뿐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자)

불성순교지례

<p>백두산·연길·북경 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6월 25일 동참금: 100만원 일정: 서울-신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p>인도네시아 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출발: 6월 18일 동참금: 95만원 	<p>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6월 23일 동참금: 188만원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루르관-우룸치-북경-서울
<p>스리랑카 6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님 진신사리 전전 출발: 6월 20일 동참금: 118만원 	<p>대만 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광사·화련·타이케이 출발: 6월 20일 동참금: 65만원 	<p>벵·네팔 10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7월 20일 동참금: 230만원 일정: 서울-카트만두-라사-제탕-장제-시가제-라사-카트만두-서울
<p>국불교유적지 13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6월 20일 동참금: 195만원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승산 소림사-경주-대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p>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p> <p>사세 확장으로 의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p>	

HVECHO ADVENTURE TOURS, LTD.

이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